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이수미 ·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Lee, Su-Mi · Min, Ha-Ye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how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an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may be related to mother's child-rearing stress. The subjects were 320 mothers whose children were 3, 4 or 5 age preschoolers attending day care centers in Keoungbok. Statistical techniques were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were as follows.

1. Mother's child-rear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2. Mother's child-rearing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3.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an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to mother's child-rearing stress. And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tha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on mother's child-rearing stress.

Key Words : mother's child-rearing stress, preschooler's adaptive temperamen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I. 서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감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박용임, 1995; 전귀연, 김수경, 2005; Abidin, 1990; Petit, Vaughn-Code, & Wampold, 1994)라는 점 때문에 유아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감 측면에서도 관심있게 다루어야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양육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nic과 Greenberg(1990)는 양육역할의 수행 및 자녀와

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양육 스트레스가 출산과 같은 주요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기능과 함께 유아의 부적응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부적응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신숙재, 1997; Abidin, 1992)과 강압적인 부모 반응을 야기(Krech & Johnston, 1992)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양육행동의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적응적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 Corresponding author: Min, Ha-Yeoung
Tel: 053) 850-3545, Fax: 053) 850-3545
E-mail: hymin@cu.ac.kr

변인을 규명하는 것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적응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 규명의 노력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발의 주요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자녀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주요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아버지 변인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유발 대상과 감소의 대상을 함께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으로부터 기인되므로 자녀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질적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관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아의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행동특성으로 유아의 고유한 특성 및 행동 반응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Thomas & Chess, 1977).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수행을 좌절시킴으로써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형성, 2005; Abidin, 1990; Corwyn & Bradley, 1999; 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저하와 양육 스트레스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생각해볼 때, 최형성(2005)의 연구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는 유아의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실질적으로 한세영과 박성연(1996)은 정서적 기질이 높아 쉽게 감정에 좌우되는 유아의 어머니가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고 보고했으며, 남혜순(2003)도 적응적 기질을 가진 유아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아의 기질 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로 역할하기 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근본적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Lamb, 1986)라고 표현 될 만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에 대한 기대는 핵가족의 현대사회 안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활동에 있어 남편인 아버지가 가장 영향력있는 지원체계이며(Brunelli et al., 1995; Burchfield, 1996; Shapiro & Mangelsdorf, 1994; Simon et al., 1993) 아버지가 유아기 자녀의 생활지도나 여가활동 지도,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등(김정, 이지현, 2005)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모의 학력, 소득, 취업유무, 자녀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거나, 양육행동이나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김미숙, 문혁준, 2005; 김선희, 2005; 최형성, 2005; Levy-Shiff et al., 1998), 또는 양육 스트레스의 사회적 지지원을 탐색하는 연구(김정, 이지현, 2005)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양육 스트레스의 대상원이라 할 수 있는 유아와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인 아버지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험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제공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로부터 감소하거나 완화된 스트레스까지 고려하여 지각된 것이라 할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 스트레스 대상 요인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 요인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의 대상인 유아의 개인적 기질 특성과 양육 분담자이며 주요 사회적 지지원으로 평가되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 및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유아기 자녀 양육으로부터 지각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만3,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1세로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6.8세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4.4%, 전문대졸 이상이 55.6%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29.1%, 전문대졸 이상이 70.9%로 나타났다. 68.1%가 전업주부였으며 31.9%가 취업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40.6%가 사무직·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문직·관리직 종사자가 23.4%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자녀 중 55.9%가 남아였으며 44.1%가 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36 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는 총 36문항이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 가능 총점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내 아이는 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은 79.9(16.8)이었고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경순(1993)이 제작한 아버지 참여도 검사 도구를 최한순(1995)이 유아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5문항으로 '자녀의 놀이 상대가 되어준다', '자녀와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등의 여가활동 12문항, '자녀가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 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등의 생활지도 9문항, '설거지를 돕는다', '잠

자리 이부자리를 정돈한다' 등의 가사활동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1점)'에서 '자주 하고 있다(5점)'의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평균(표준편차)은 76.4(13.8)이었고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하위척도별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여가활동이 Cronbach's α =.89(평균 37.8, 표준편차 7.3), 생활지도는 Cronbach's α =.89(평균, 28.5, 표준편차 5.4), 가사활동은 Cronbach's α =.83(평균 10.1, 표준편차, 3.5)이었다.

3) 유아의 기질

Presley와 Martin(1994)이 개발한 TABC(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척도 중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용 유아의 적응적 기질 척도를 사용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의 집을 몇 번 방문한 후에는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 '문제가 생겨 짜증이 날 때 우리 아이는 소리치거나 울기보다 짧게 푸념한다', '일과 시간이 바뀌어도 우리 아이는 쉽게 변화에 적응한다' 등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음(1점)'에서 '언제나 그러함(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유아의 기질 평균은 27.51(4.41)이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로 나타났다. 점수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임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경북지역내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3, 4, 5세 유아의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만3, 4, 5세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그리고 아버지 양육 참여를 묻는 어머니용 질문지를 교부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원생을 통해 유아의 어머니에게 배부하였으며 일주일 기간을 두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아버지가 없는 경우나 부실 기재된 질문지 30부를 제외한 32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 분석 이전에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통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 성별, 유아 형제 유무,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유아 성별(정지연, 2002) 및 유아 형제 유무, 어머니의 취업 유무(고성혜, 1994; 김정, 이지현, 2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 성별, 유아 형제 유무 및 어머니 취업유무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표 2>에서와 같이 유아

<표 1> 유아 성별, 유아 형제 유무 및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인	변인구분	평균(SD)	t
유아 성별	남아(178)	82.53(15.31)	-.91
	여아(141)	84.06(14.48)	
유아 형제 유무	외동(26)	86.00(14.42)	.99
	형제(294)	82.97(14.97)	
어머니 취업유무	전업(218)	83.72(15.32)	.89
	취업(102)	82.13(14.05)	

<표 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간 상관관계 (n=32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372***

*** p <.001

의 적응적 기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r=-.372, p<.001$).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라 평가하지 않는 어머니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r=-.300,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의 여가 참여($r=-.274, p<.001$)와 생활지도($r=-.279, p<.001$) 그리고 가사 참여($r=-.176, p<.01$) 각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적률상관계수에서 보여지듯,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가사 참여보다 여가 참여나 생활 지도 참여시 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위계적 중회귀분석이 적합함(양병화, 2002)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기질을 1단계에서 투입하고, 아버지 양육 참여를 2단계 투입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에 의해 14%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양육 참여시 설명력이 6% 증가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표 3>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간 상관관계 (n=320)

변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 양육 참여	-.300***	
아버지 양육 참여	가사참여	-.176**
	여가참여	-.274***
	생활지도	-.279***

** p <.01 *** p <.001

<표 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유아의 기질에 대한 위계적 중회귀분석과 상호 작용 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ΔR ²	F값(df)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B	St err.	β			
1단계	상수	83.22	.78		.14		51.09*** (1,318)
	유아의 기질	-1.26	.18	-.37***			
2단계	상수	83.22	.75		.20	.06	38.51*** (2,317)
	유아의 기질	-1.12	.17	-.33***			
	아버지 양육 참여	-.26	.06	-.24***			
3단계	상수	83.19	.76		.20	.00	25.61*** (3,316)
	유아의 기질(A)	-1.12	.17	-.33***			
	아버지 양육 참여(B)	-.26	.06	-.24***			
	A×B	-.002	.01	-.01			

** p <.01, *** p <.001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해 20% 정도 유의하게 설명되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β=-.24, p<.001)보다 유아의 기질(β=-.33, p<.001)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3단계에서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 양육 참여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만3세에서 만5세 유아 32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대상자인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양육 지지자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냈다.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지 못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였다는 선행연구(남혜순, 2003; 한세영, 박성연, 1996)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가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한다고 밝힌 이 연구의 결과와 일상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기질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Acevedo, 1993)를 연결시

켜 생각해 보면 유아의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이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높아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적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도 반드시 감소되어야 할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유아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적 재해석 과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의한 관련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가사 참여보다 유아의 생활 지도나 여가 활동 참여시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놀이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 망 확대에 따라 사회생활에 대한 규율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유아기에 놀이 친구이며 훈육자로 역할할 것을 전통적으로 기대 받아온 아버지(Hosley & Montemayor, 1997)가 생활 지도나 여가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전통적으로 어머니 역할로 기대되어온 가사 참여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해 감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 또는 감소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정, 이지현, 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머니의 자녀양육 활동에 있어 아버지가 의미있는 지원 체계로 역할 할 수 있음(Brunelli et al., 1995; Shapiro & Mangelsdorf, 1994; Simon et al., 1993)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제에 대한 논의가 여성가족부(www.mogef.go.kr)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아버지가 효율적으로 역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해 모두 영향받지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보다 유아의 기질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지원자인 아버지보다 양육 대상자인 아동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아의 기질이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어머니의 인식 변화 노력이 수반될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보다 감소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유아의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이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유아의 기질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의 기질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영향력이 유아의 기질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던 또는 적응적이지 않던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양육 대상자와 양육 지원자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기질에 적합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규명했으면 한다.

주제어 :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 참여

참 고 문 헌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정, 이지현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05, 5, 2) <http://www.mogef.go.kr>
- 전귀연, 김수경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1.
- 정지연 (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유아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형성 (2005) 남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세영, 박성연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Abidin, RP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401-412.
- Acevedo, MC (1993) Determinants of the variations in parental affect socializatio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 Brunelli, SA, Wasserman, GA, Rauh, VA, Alvarado, LE,

- Caraballo, LR (1995) Mothers' reports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52-171.
- Burchfield, DC (1996) Determinants of fathers as primary child care providers in working.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429-435.
- Corwyn, RF, Bradley, RH (1999) Determinants of paternal and maternal investment in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0, 238-256.
- Crinic, KA, Greenberg, M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ckenberg, SB (1987)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Hosley, CA, Montemayor, R (1997) Fathers and adolescents. In M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162-178). New York: Wiley.
- Krech, KH, Johnston, C (1992)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amb, ME (1975)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 Wiley, 3-5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17-1427.
- Petit, MA, Vaughn-Cole, B, Wampold, BE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 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51-158.
- Presley, R, Martin, R (1994) Toward a structure of preschool temperament: Factor structure of the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J. of Personality*, 62(3), 415-448.
- Shapiro, JR, Mangelsdorf, S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 of Youth & Adolescence*, 23(6), 621-642.
- Simons, RL, Beaman, J, Conger, RD,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Teti, DM, Gelfand, D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6. 12. 03 접수; 2007. 03. 29 채택)